

보도시점 2026. 9. 4.(금) 14:30 / 배포 2026. 9. 4.(금) 08: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 9. 4. (금) 13:00~18:00
- 장 소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 204호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신뢰와 AI혁신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주 제 :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오늘 한국소비자법학회(학회장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소비자 신뢰와 AI혁신 포럼(공동의장 문미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이준형)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인공지능(이하 'AI')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법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거래와 안전이라는 두 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성형 AI가 시장거래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으며 소비자 편익도 향상되고 있으나, AI 기반의 정교한 전자금융사기(피싱)와 가짜 비평(리뷰), 교묘해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을 통한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AI 위장

(위성) 점검(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인공지능의 확산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약, 책임, 안전 등 기존 소비자법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기술혁신을 대립적인 가치로 보기보다는 소비자가 새로운 기술을 신뢰하고 안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학술대회가 AI 시대에 필요한 소비자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신뢰와 AI혁신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여, 여러 학계와 민간의 전문가가 두루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AI가 제기하는 소비자법의 과제를 AI를 매개로 한 거래의 문제와 AI로 인한 안전의 문제로 두 개 분과(이하 ‘세션’)로 나누어 다루되, 각 세션에서 입법, 계약, 책임, 정책(거버넌스) 등 논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제1세션에서는 ❶「AI 에이전트와 입법 방향에 관한 고찰」(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❷「에이전트 AI와 소비자계약」(황원재 고려대학교 교수), ❸「에이전트 AI로 인한 사고와 책임」(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❹「에이전트 AI와 전자상거래법상 이슈」(최난설현 연세대학교 교수)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2세션에서는 ❶「소비자 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 법제도 : 위해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중심으로」(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❷「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 확산 방지제도」(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❸「인공지능 사용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유성희 소비자시민모임 AI 위원회

위원장), ④「의료분야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과 의료소비자 보호」(백경희 인하대학교 교수) 4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각 발표 주제별로 공정거래위원회 권순국 소비자정책총괄과장, 배현정 소비자안전교육과장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AI 시대에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공동 학술대회 세부 일정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책임자	과 장	배현정 (044-200-4420)
		담당자	사무관	김효선 (044-200-4421)
			조사관	김다훈 (044-200-4425)



개회 13:00~13:30

개회사 김현수 회장 (한국소비자법학회, 부산대학교 교수)
 축사 남동일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이국운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정응석 원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문미란 공동의장 ('소비자 신뢰와 AI 혁신 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윤수현 원장 (한국소비자원)
 환영사 이준형 소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총괄사회 박혜진 교수
 (한양대학교,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이사)

세션 1 |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 (601호)

제1주제 13:30~14:30

AI 에이전트와 입법 방향에 관한 고찰

사회 이준형 교수 (한양대학교)
 발표 현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박신욱 교수 (국립경상대학교)
 고철웅 교수 (한남대학교)
 장보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주제 14:30~15:30

에이전트 AI와 소비자계약

사회 김상중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황원재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권순국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진 교수 (서울대학교)
 서인원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휴식 15:30~15:50

제3주제 15:50~16:50

에이전트 AI로 인한 사고와 책임

사회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학교)
 발표 김태훈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이상훈 교수 (한양대학교)
 성윤희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이재호 정책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제4주제 16:50~17:50

에이전트 AI와 전자상거래법상 이슈

사회 위계찬 교수 (한양대학교)
 발표 최난설현 교수 (연세대학교)
 토론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김중길 교수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김민성 재판연구관 (대법원)

폐회 17:50~18:00 (601호)

세션 2 |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 (204호)

제1주제 13:30~14:30

소비자 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 법제도: 위해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중심으로

사회 최광준 교수 (경희대학교)
 발표 김세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토론 배현정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박현주 국장 (한국소비자원)
 이지은 교수 (경북대학교)

제2주제 14:30~15:30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 확산 방지제도

사회 이병준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정신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김 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백민현 실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정수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3주제 15:50~16:50

인공지능 사용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사회 이유봉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
 발표 유성희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AI위원회)
 토론 배현정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민아 정책연구위원 (한국소비자원)
 박소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제4주제 16:50~17:50

의료분야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과 의료소비자 보호

사회 서종희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 백경희 교수 (인하대학교)
 토론 정다운 교수 (국민대학교)
 김대경 교수 (제주대학교)
 채은선 수석연구위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현수 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깊이 있는 연구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대한민국 소비자법제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 학술공동체입니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의 증진에 늘 선제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신 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포지엄 역시 ‘인공지능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본격화된 지 불과 3년 남짓 만에,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에는 물론 시장거래와 산업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AI 기반의 정교한 피싱, 가짜 리뷰와 교묘해진 다크패턴, 플로팅 광고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안전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협합니다. AI 디지털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AI 환경은 소비자정책과 법·제도 전반에 큰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AI 활용 시장질서 교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공정위는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최근 개정하여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AI 위싱 등 악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위해정보 분석·유통차단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소비자 정보 제공 채널도 강화하고,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AI 소비자 리터러시' 강화에도 더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역시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는 한편, AI 환경에 필요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AI 시대의 소비자 거래와 안전과 관련한 8가지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매개하는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공백은 없는지, AI 시대에 새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이슈는 무엇인지, 폭넓은 진단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논의는 앞으로의 AI 시대에 대응하여 소비자 법제를 정비해 나가는데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누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